지역 소식통

"이달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내일부터

정읍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5억7,100만원, 6만8천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활동

부안군 부안읍 의용소방대(대장 박천섭)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안상설시장과 시내·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부안읍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버스터미널 위주로 일제히 소독을 실시했으며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예방수칙을 홍보다했다.

박천섭 부안읍 의용소방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읍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남 부안읍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읍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손씻기, 사람간 거리 2m이상 유지하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헌장 의견수렴 순항

고창군, 초안 완성… 22일까지 홈피통해 다양한 의견 접수
10월25일 '군민의날' 기념식서 바뀐 군민헌장 공포 · 낭독

고창군민헌장 개정안의 초안이 완성된 가운데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순항하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홈페이지에 '군민헌장 의견수렴방'을 만들고 남녀노소 고창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홈페이지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추가적으로 각종 SNS,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폭넓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을 거듭해 최종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군민헌장은 오는 10월25일 제59회 고창군민의날(매년 음력9월9일 개최) 기념식에서 바뀐 군민헌장을 공포하고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27일 고창군민헌장 개정추진위원회 출범하고 4개월여동안 군민헌장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소위원회 포함 7차례의 회의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초안이 완성돼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있다.

고창군민헌장은 1970년 제정됐고, 지난 1991년 1차 개정돼 '밝은 사회이룩', '부를 쌓아 국리민복 기여' 등 5개항의 다짐을 담고 있다.

이에 군은 한자사용 자제 등 언어표현을 순화하고, 한반도 첫수도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창군 이황섭 울력행정팀장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군민헌장을 통해 군민이 화합하고 고창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2018~2019년 성과평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지역자활센터, 성과평과 '우수기관' 선정

운영비 1900만원 추가 지원

정읍시가 정읍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2018~2019년 성과평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기관규모에 따른 사업성과의 편차를 감안해 전년 대비 사업실적 증감률 등 자활정보시스템 입력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자활참여자 증감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감률, 수익금 매출액 증가폭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사기진작과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1,9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시규 사회복지과장은 "정읍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시의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취·창업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로 지정되어 현재 10개 자활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허태웅 농진청장 "지역상생 함께 협력"

고창군 찾아 애로사항 청취
발효식초 사업장 방문 격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11일 오후 지역 현안 등 의견수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창군을 찾았다.

고창군과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보리 통상실시권, 복분자 토양분석연구, 식초제조기술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오고 있다.

허태웅 청장은 "오는 16일에도 상하농원에서 고창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도 예정돼 있다"며 "생산자와 연구기관, 식품기업이 함께 손잡고 윈-윈하는 지역상생 발전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진농식품(대표 유윤상) 사업장을 방문해 식초제조 시설과 체험시설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식'을 열고, 국산 종균 발굴과 기술 이전, 제조업체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 청장은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경영체로서 청년이 가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홍보능력 등의 장점을 살려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초기업으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 전통발효식초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 국민이 애용하는 대표 면역증진식품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세계 4대 식초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R&D 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11일 오후 지역 현안 등 의견수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창군을 찾았다.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대응… 항공 예찰

정읍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방제를 위해 지난 11일 지역 내 산림에 대한 항공 정밀예찰을 실시했다.

산림청 헬기가 투입된 이번 항공 예찰에는 곽승기 부시장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관계자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항공 예찰은 소나무재선충병 기존 발생지인 망제동과 소성면 등 확산이 우려되는 기존의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신규발생지인 고부면과 임실군으로부터 확산이 우려되는 산내면 등 외곽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했다.

시는 항공 예찰 중 발견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좌표를 취득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투입하고, 시료 채취와 검경분석을 통한 지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가을철에 이를 토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에 반영해 효과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재선충병 방지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신태인은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발견되지 않아 올해 청정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마 · 태풍에 쓰러진 農心 위로"

권익현 부안군수, 철저한 피해조사 · 보상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장마·태풍에 쓰러진 것은 벼가 아닌 농심(農心)이라며 철저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4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지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쓰러진 것은 벼가 아닌 농심"이라며 "이 분들에게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파악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명절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인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대응논리를 보강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있다. 이는 바로 언로(言路)가 트여 있었기 때문이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